

시대를 함께 버텨온 그림...광장서 이어진 연대 기록

박재동 화백 시사만평전...오는 28일까지 갤러리 생각상자

12·3 계엄, 촛불집회 등 동시대 이슈 담은 108점 선배

“겉으로는 웃음을 주지만, 그림을 보고 있으면 ‘함께 싸워야겠네’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게 내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 시대를 그려온 풍자화가 박재동 화백은 여전히 현장에 있다. 신문 지면을 넘어 광장에서, 그리고 시민들 곁에서. 동구 갤러리 생각상자에서 열리고 있는 시사만평전 ‘여전히 그리고 있다’는 그가 쌓아온 시간과 시선을 한자리에 모은 전시다.

이번 전시는 최근 4·5년간 작업한 시사만화 원화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윤석열 정부 시기와 12·3 계엄, 촛불집회, 미국 정세 등 동시대의 주요 이슈를 다룬 작품 약 108점이 전시장에 걸렸다.

특정한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그가 꾸준히 그려온 그림들을 통해 시대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자리다.

그의 그림 속에는 늘 사람들이 있다. 권력의 중심이 아니라 거리와 광장, 일상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이들도. 세월호 이후 매년 5월이면 5·18민주광장을 찾아 시민들을 그려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새벽광장에서 밤을 새우며 사람들의 얼굴을 그렸고, 2014년에는 ‘8158-일어나라! 광주!’라는 대형 결계그림을 현장에서 완성하기도 했

다. 그는 시사만화를 ‘사건을 한 장면으로 요약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슬픔일 수도 있고, 분노일 수도 있고, 공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감정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쌓여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거죠.”

단순한 비판에 머물지 않는 점도 그의 작업을 특징짓는다.

“같이 비웃자, 같이 지적하자, 같이 분노하자, 같이 연대하자. 이런 것들이 그림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음이지만, 안에서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거죠.”

30년 넘게 이어온 작업은 시대에 따라 방향을 달리해왔다. 1988년 시사만화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노동운동과 민주화 투쟁 등 국내 문제가 주요 소재였다. 노태우 정권 시기, 노조 결성을 막는 사회 분위기와 거리의 투쟁은 그의 그림에 오롯이 반영됐다.

이후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상황은 변했지만, 그는 여전히 사회 곳곳의 폭력 구조를 주목해왔다. 최근에는 국제 정세로 시선이 확장됐다. 박화백은 “지금은 전 지구적인 폭력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시대”라며 “전쟁으로 아이들이 죽어가



박재동 화백 시사만평전이 오는 28일까지 갤러리 생각상자에서 열린다. 사진은 자신의 풍자화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박화백.

는 현실 같은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풍자를 이어온 시간만큼 정서적 부담도 쌓였다. 그는 한동안 시사만화를 멈추고 일상 인물을 그리는 ‘손바닥 그림’ 작업에 몰두하기도 했다. 노동자와 아이, 거리의 사람들을 그리는 시간은 그에게 일종의 치유로 작용했다.

그럼에도 그는 다시 광장으로 돌아왔다. 12·3 계엄 국면에서도 그는 현장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동학농민운동에서 5·18민주항쟁, 촛불 집회로 이어지는 흐름 역시 그의 작업 속에 자연

스럽게 녹아 있다. 광주에 대한 그의 인식도 남다르다. “광주는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처이면서도 희망이기도 한 곳입니다. 고난과 희망을 동시에 가진, 우리 민족의 심장 같은 곳이지요.”

그는 매년 광주를 찾아 5·18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만나왔고, 지난해 5·27세벽광장 예술제 행사에서는 당시 기동타격대로 나섰던 이들의 얼굴을 다시 그려주기도 했다.

소년이었던 이들이 세월을 지나 노년이 된 모습을 마주하며, 그는 그 시간을 그림으로 어루만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는 박재동 화백 작품들.

졌다. 주홍 갤러리생각상자 관장은 “12·3 계엄을 함께 이겨낸 광주 시민들에게 전하는 선물 같은 자리”라며 “박 화백은 공동체가 위태로울 때 어디든 나타나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라고 밝혔다.

전시는 오는 28일까지 이어지며, 이후 5월2일부터 30일까지 서울 박재동갤러리에서 이어진다. /글·사진=최명진 기자

‘봄, 음악으로 피어나다’...2026엘림춘계음악회 성료

엘림합창단이 생동감 넘치는 봄의 기쁨을 전하는 무대를 성료했다.

그라시아스합창협회가 주최하고 광주매일신문이 후원한 ‘2026엘림춘계음악회’가 지난 11일 광주디자인진흥원 이벤트홀에서 열렸다.

첫 무대는 엘림합창단의 ‘강 건너 봄이 오듯’, ‘봄이 오면’ 공연으로 꾸며졌다. (사진) 남성 중창이 ‘걱정말아요 그대’, ‘바람의 노래’ 등 노래를 통해 아픔을 덮고 다시 살아갈 힘을 전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바이올린과 첼로 등 다양한 악기가 어우러진 엘림 앙상블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무대는 따뜻하고 감미로운 클래식 선율로 장내를 휘감았다.

김진성 기쁜소식공교회 담임 목사는 축하 메시지를 통해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과 영국군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12월24일 저녁에 부른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노래’로 다음날 적



군 아군 구별없이 하나가 됐다는 것은 음악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엘림합창단은 음악으로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해 마음을 얻는다. 마음이 온유해질 때 자신의 주장을 버리고,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내 죄를 다 씻으셨다는 마음을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 마음을 받아들이면 가족 간에도 그리고 개인의 삶에도 평안과 행복

이 넘친다”고 덧붙였다.

루미에르 밴드는 영화 ‘미녀와 야수’ OST인 ‘뷰티 앤 더 비스트’(Beauty and the Beast)를 선보이며 특유의 독보적인 감성과 보이스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공연의 대미는 엘림합창단과 앙상블이 함께 한 피날레 ‘The Rose’, ‘강하고 담대하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가 장식했다. /최명진 기자

매화·목련·들풀...봄꽃에 스민 삶의 결

최재봉 기획전, 국윤미술관

봄꽃을 매개로 인간의 삶과 내면을 들여다보는 전시가 마련됐다.

국윤미술관은 오는 5월15일까지 최재봉 작가 기획전 ‘봄 결’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따뜻한 봄 풍경과 꽃을 통해 일상의 미학을 새롭게 바라보고, 작가의 가치관과 작품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최재봉 작가는 자연 풍경을 현장 사색으로 탐구하며 독자적인 작업 세계를 구축해왔다. 익숙한 풍경을 감상의 대상으로 머물지 않고 인간의 삶과 내면을 담아내는 매개로 풀어낸다.

전시는 매화, 목련, 들풀, 소나무 등을 소재로 한 작품 20여 점으로 구성됐다. 특히 200호에서 300호에 이르는 대형 작품을 중심으로 매화와 들풀 등 다양한 봄꽃을 담았다. 작가는 꽃의 외형을 넘어 그 이면에 현대인의 삶과 고민을



‘매화의 향연’

녹여냈다.

출품작 ‘매화’에서는 사색을 통해 대상과 교감한 작가의 시선이 드러난다. 굽이치는 고목과 가지 위에 핀 꽃, 물 위로 흘러가는 꽃잎의 순간을 포착해 자연의 흐름을 화면에 담았다.

최재봉 작가는 “꽃을 통해 민중의 모습과 민초들이 공감하는 세상을 담았다”며 “작업에는 민중의 정서를 담고, 현대인의 삶에 대한 고민을 연결해보고자 했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나왔다!!! 마시는 씨알-렉스 PREMIUM

고객의 성원에 힘입어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씨알-렉스가 출시되었습니다. 효능·효과는 물지마세요!

주요성분 비수리(야관문), L-아르지닌, 아연, 마카, 복분자, 토사자, 오미자, 사상자, 산수유, 마늘 등



1박스-60,000원

※ 하루 한포면 충분합니다.

NH농협손해보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3억 가입



상품등록 : 제40-1007119호

각 시·군 취급점 모집

© 광주 약국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문 080-374-5046 / 010-3738-8989

보람약품(주) 062)528-6664